

고입, 제도를 먼저 읽으십시오

영재학교 · 과학고 · 외고 · 국제고 · 자사고를 가르는 법

- ◆ 이 책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공개된 요강·공시 자료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생기는 오해 ·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없는 학교

전국 단위와 광역 단위

이중지원 —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

세 번 쓸 수 있는 길과 걸리는 자리

특목고를 보내야 하나

판단 기준 · 제도가 바뀐 자리부터

과학고 3년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무엇이 다른가

전문교과 34과목으로 보는 실제

외고·국제고는 문과만 가는 곳인가

교육과정과 진학 갈래

자사고 33곳, 전국형과 광역형

모집 단위와 학비

자기소개서와 면접, 학교가 실제로 보는 것

요강이 밝힌 평가 항목만

44 · 차례

무엇이 어디에 있나

1. 01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다릅니다 5
2. 02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없는 학교 10
3. 03 이중지원 —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 15
4. 04 특목고를 보내야 하나 20
5. 05 과학고 3년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무엇이 다른가 25
6. 06 외교·국제고는 문과만 가는 곳인가 30
7. 07 자사고 33곳, 전국형과 광역형 35
8. 08 자기소개서와 면접, 학교가 실제로 보는 것 40

CUBE

01 · 머리말

이 책을 왜 드리나

저희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무료입니다.

까닭을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정보는 넘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것과 파는 말이 섞여** 있어서, 학부모님이 그것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다 쓰십니다. 그 상태로 상담에 오시면 **첫 시간을 오해를 푸는 데** 씁니다.

이 책을 읽고 오시면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과의 상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눠 드리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책 곳곳에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학원을 늘리지 마시라는 말, 이걸 상담 없이 집에서 하실 수 있다는 말, 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은 자료라야 나머지 말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에는 출처를 달았고, 없으면 안 썼습니다.

이 책의 숫자는 **공개된 모집요강·공시 자료·국가 통계**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각 편 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리는 **「저희 판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구분해 두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CUBE

2026년 8월

02 · 먼저 읽을 것

고입 제도 한 장 지도

고입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읽는 것입니다. 어떤 갈래가 있고, 누가 쓸 수 있고, 몇 번 쓸 수 있는지. 이 셋을 모르고 학교부터 고르면 준비한 것이 통째로 헛것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책은 여덟 편을 묶었습니다. 그 여덟이 답하는 물음은 넷입니다.

물음	어디서 답하나
무엇이 있나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어떻게 다른가 · 다섯 갈래의 지도
누가 쓸 수 있나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 지원 자격이 걸리는 자리
몇 번 쓸 수 있나	영재·전기·후기 세 군과 이중지원
거기서 3년을 살 것인가	교육과정 편제표 · 학비 · 판단 기준

세 줄만 먼저 외우십시오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군	한도	여기 속하는 학교
영재학교	1	영재학교 8곳 — 전기·후기 구분 밖입니다
전기고	1	과학고 · 예고 · 체고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후기고	1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 일반고

제도상 세 번이고, 시기가 그 순서를 정합니다 — 영재학교가 여름, 전기고가 가을, 후기가 겨울입니다. 앞에서 떨어지면 뒤로 갑니다.

다만 앞에서 붙으면 뒤가 닫힙니다. 과학고에 합격하면 등록을 포기해도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줄이 고입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이고, 이 책이 되풀이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읽는 차례

앞의 네 편(제도)을 먼저 읽으시고, 뒤의 네 편(학교별 실제)은 목표가 정해진 뒤에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도를 모른 채 편제표부터 보면 고를 수 없는 학교를 오래 들여다보게 됩니다.

03 · 숫자부터

서울과학고는 과학고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서울과학고 보내려고요. 과학고 설명회 다녀왔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긋난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과학고는 과학고가 아니라 영재학교입니다.** 설명회에서 들으신 원서 시기는 서울과학고와 다섯 달 차이가 납니다.

먼저 수부터 보시겠습니다. 둘은 **규모가 세 배** 다릅니다.

갈래	학교 수	근거 법령
영재학교	8교	「영재교육진흥법」 —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과학고	22교	「초·중등교육법」 상 특수목적고

법이 다르다는 것은 **제도의 뿌리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모집 단위도, 지원할 수 있는 학년도, 원서 시기도, 전형 방법도 여기서 갈립니다. 뒤에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그 차이를 감춥니다

아래 5곳은 이름이 「과학고」 인데 **영재학교**입니다.

경기과학고 서울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반대로 이름에 「영재」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 여덟이 전국 영재학교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과학고」는 모두 **과학고**입니다 — 세종과학고·한성과학고·인천과학고처럼요. 결국 **이름으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이 여덟 곳을 외우시는 편이 빠릅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및 「영재교육진흥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 수는 2026년 8월 기준.

04 · 누가 쓸 수 있나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다릅니다.

	영재학교	과학고
모집 단위	전국 — 사는 곳과 무관하게 씁니다	시·도 — 그 시·도 중학교 또는 거주자
지원 학년	중학교 재학생이면 됩니다 — 중1·중2도 가능	중학교 졸업(예정)자
추천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 추천	소속 학교장 추천
중복지원	영재학교끼리 한 곳만	전기고에서 한 번

「전국 단위」가 뜻하는 것

영재학교는 사시는 곳이 어디든 여덟 곳 중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여덟 곳 가운데 딱 한 곳입니다. 두 곳에 넣으면 불합격 처리되고, 발표 뒤에 드러나도 합격과 입학이 취소됩니다.

과학고는 반대입니다. 살고 있는 시·도의 과학고에만 씁니다. 그래서 과학고는 「어디 사는가」가 먼저이고, 영재학교는 「어느 한 곳인가」가 먼저입니다. 고르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중1·중2가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영재학교는 중학교 재학생이면 학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가 열려 있다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1·중2가 합격하면 소속 중학교에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대부분은 중3입니다. 「일찍 쓰면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 영재학교는 한 학년도에 한 곳만 쓸 수 있고, 그 한 번을 쓴 것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의 지원자격·중복지원 조항. 학교마다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목표 학교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05 · 언제 · 어떻게

원서가 다섯 달 차이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과학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면, **영재학교 원서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언제	영재학교	과학고
원서	3월 ~ 5월 (학교마다 다릅니다)	8월 무렵
전형	6월 ~ 8월	9월 ~ 12월
최종 발표	여름 — 8월 안팎	겨울 — 11~12월
지원 군	전기·후기 밖	전기고

영재학교가 먼저 끝난다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영재학교에 떨어져도 과학고에 쓸 수 있습니다 — 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재학교를 먼저 쓰고 과학고로 이어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뽑는 방법도 다릅니다

단계	영재학교	과학고
1	학생기록물 평가 — 서류	서류평가
2	영재성 검사 — 지필	개별 면담
3	영재성 캠프 — 1박 2일 안팎	소집 면접

가운데 자리가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영재학교는 문제를 풀리고, 과학고는 말을 시킵니다.**

영재학교 2단계는 수학·과학 지필 평가입니다. 창의력·문제해결력을 봅니다. 과학고 2단계는 중학교로 찾아가거나 불러서 **학생과 직접 이야기합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힌 것을 놓고 「이건 어떻게 한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재학교는 푸는 힘, 과학고는 자기 것으로 설명하는 힘입니다.** 3단계는 둘 다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봅니다** — 인성과 협업이 여기서 갈립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의 전형 일정·단계별 평가.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06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둘 중 무엇을 볼지는 순서대로 물으면 대개 정해집니다.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아이가 수학·과학을 스스로 파고드는가	아니면 둘 다 권하지 않습니다
2	지필 평가와 면담 중 어느 쪽이 강한가	지필이면 영재학교 · 말이면 과학고
3	중3 여름을 통째로 쓸 수 있는가	어려우면 과학고 한 줄로 갑니다
4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갈지 정해 두었는가	없으면 아직 원서를 쓸 때가 아닙니다

3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영재학교 전형은 6월부터 8월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중3 1학기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영재학교에 떨어지고 과학고로 갈 때 내신이 흔들려 있으면 두 번째 문도 좁아집니다.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가려는 학교가 **영재학교인지 과학고인지** 이름이 아니라 목록으로 확인했는가
- ☐ 그 학교의 **원서 접수 기간** 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가
- ☐ 영재학교는 **여덟 곳 중 한 곳** 이라는 것을 알고 골랐는가
- ☐ 과학고는 **사는 시·도** 의 학교인지 확인했는가
- ☐ 2단계가 **지필인지 면담인지** 알고 준비하고 있는가
- ☐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안 되는 것** 을 확인했는가 (인증시험·수상·영재교육원)
- ☐ 과학고에 합격하면 **후기고에 못 쓴다** 는 것을 알고 있는가
- ☐ 떨어졌을 때 갈 곳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여덟 개 중 하나라도 「모르겠다」가 있으면 그 자리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뒤가 다 소용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교 준비는 대부분의 아이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준비 과정이 길고 비싸서 학원은 권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여덟 곳이 뿔는 자리이고, 2단계가 지필이라 **맞는 아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수학·과학 문제를 **시키지 않아도 붙들고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은 내신에 쓰는 편이 3년 뒤에 남는 것이 많습니다.

07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영재학교에 떨어지면 과학고에 못 쓰나요?

쓸 수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운영돼 **전기·후기 구분 밖에** 있습니다. 과학고는 전기고입니다. 군이 다르니 걸리지 않습니다.

순서도 맞습니다. 영재학교는 여름에 끝나고 과학고 원서는 8월 무렵입니다. **영재학교 → 과학고 → 후기고**로 세 번 쓰는 길이 제도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반대는 안 됩니다. **과학고에 합격하면 등록을 포기해도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외교·국제고·자사고·일반고가 모두 후기고입니다. 과학고 원서는 **붙었을 때를 각오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Q. 영재교육원을 다니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영재교육원 교육·수료 사실을 기재하면 **항목별 감점 또는 0점** 처리 대상입니다.

같이 막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공인 어학시험 점수(TOEFL·TEPS 등), 교내외 대회 입상, 자격증, 해외 어학연수 경험, **선행학습·사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름과 출신 중학교도 적을 수 없습니다.

실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다만 「기록에 남길 스펙」으로 접근하시면 **제도와 어긋납니다.** 평가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적힌 학교 안의 활동**으로 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더 좋은 학교와 덜 좋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제도**입니다. 먼저 **어느 제도에 쓰는지**를 정하십시오. 준비는 그다음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과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 수와 일정·전형 방법은 해마다 바뀌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학교의 최신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08 · 숫자부터

「어디 사는가」가 먼저 걸립니다

「이 학교 좋다는데 한번 넣어 볼까요.」

상담실에서 이 말이 나오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고입에서 자격을 가르는 첫 잣대는 **모집 단위**입니다. 갈래마다 다릅니다.

갈래	학교 수	어디까지 뽑는가
영재학교	8	전국 — 사는 곳을 따지지 않습니다
과학고	22	시·도 — 그 지역 중학교 또는 거주자
외국어고	28	시·도
국제고	8	시·도
자율형사립고	33	전국형과 광역형이 섞여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전국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은 영재학교 8곳과 전국형 자사고뿐입니다. 나머지는 사는 곳이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고르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디가 좋은가」가 아니라 「어디에 쓸 수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쓸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추려 놓고, 그 안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특목고 66교) 및 2026학년도 요강(자율형사립고). 모집 단위는 요강 원문에 적힌 것만 옮겼습니다.

09 · 무엇이 걸리나

「시·도 단위」가 실제로 뜻하는 것

「시·도 단위」라는 말은 뭉뚱그린 표현입니다. 요강을 열어 보면 조건이 두 갈래입니다.

어느 조건	요강에 적힌 말
중학교 소재지	「○○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거주지	「중학교 졸업자로서 ○○에 거주하는 자」

대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따라 더 조입니다. 어느 과학고 요강에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만 옮겨 놓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고가 납니다

하나 — 이사 시기. 자격 기준일이 요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봅니다. 원서 쓰는 날이 아닙니다. 기준일을 지나서 옮기면 그해에는 못 씁니다.

둘 — 중학교와 집이 다른 지역일 때. 이때는 요강 문장을 한 글자씩 읽으셔야 합니다. 「또는」이면 하나만 맞아도 되고, 「이면서」면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이 낱말 하나가 지원 자격을 가릅니다.

셋 — 졸업생. 재학생과 졸업생의 조건이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은 대개 거주지로 봅니다.

영재학교의 「전국」은 다릅니다

영재학교는 사는 곳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8곳 가운데 한 곳만 쓸 수 있습니다. 두 곳에 넣으면 불합격 처리되고 발표 뒤에도 취소됩니다. 범위가 넓은 대신 횟수가 하나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의 지원자격 조항. 인용한 문구는 요강 원문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니 목표 학교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10 · 어디에 몇 곳

갈래가 아예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도 단위라는 말은 「그 지역에 그 갈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고르게 있지 않습니다.

갈래	학교 수	있는 지역 수	무엇을 뜻하나
영재학교	8	8	전국 단위라 상관없습니다
과학고	22	15	대부분의 지역에 있습니다
외국어고	28	14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제고	8	6	절반이 넘는 지역에 없습니다

국제고가 특히 그렇습니다. 전국에 8곳뿐이고 6개 지역에만 있습니다. 사는 지역에 국제고가 없으면 그 갈래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닙니다. 설명회를 다니시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하십니다.

학교 수가 지원 난이도는 아닙니다

다만 학교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학교가 많은 곳은 지원자도 많습니다. 학교 수와 경쟁의 세기는 따로 움직입니다. 이 표는 「고를 수 있는 갈래가 몇 개인가」를 보는 표이지, 붙기 쉬운 곳을 찾는 표가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사시는 시·도에 그 갈래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학교의 요강이 요구하는 조건을 지금 맞추고 있는가. 이 둘이 맞으면 그때부터 성적을 보시면 됩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및 학교알리미 공시(2026년 8월 기준). 지역 구분은 공시의 소재지 표기를 따랐습니다.

11 ·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 차례와 점검표

순서를 지키면 헛일이 줄어듭니다. 성적은 네 번째입니다.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사는 시·도에 그 갈래가 있는가	학교 목록
2	그 학교가 전국형인가 시·도형인가	요강 「모집 단위」
3	지원 자격 문장이 「또는」 인가 「이면서」 인가	요강 「지원 자격」
4	자격 기준일이 언제인가	요강 「전형 일정」
5	그다음에 성적과 준비	—

2번을 이름으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전국」이 이름에 없어도 전국형이 있고,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학교인데 광역형인 곳도 있습니다. 요강에 「모집 단위」라고 적힌 자리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원서를 준비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가려는 학교의 **모집 단위** 를 요강에서 직접 확인했는가
- ☐ 지원 자격이 **중학교 소재지** 인지 **거주지** 인지 구분했는가
- ☐ 「또는」 인지 「이면서」 인지 **낱말을 읽었는가**
- ☐ **자격 기준일** 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가
- ☐ 이사 계획이 있다면 **기준일 전인가**
- ☐ 「전 가족 주민등록」 같은 **추가 조건** 이 없는가
- ☐ 졸업생일 경우 **조건이 다른지** 확인했는가
- ☐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되는지 **따로 확인했는가**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뒤의 준비가 통째로 헛것이 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실 자리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인은 학원에 오시지 않아도 삼십 분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요강 PDF 를 내려받아 「지원 자격」 쪽만 읽으시면 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이것부터 해 두시면, 상담에서 훨씬 값진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지금 이사하면 그 지역 학교에 쓸 수 있나요?

자격 기준일에 달려 있습니다. 요강에 「원서접수 자격 기준일」이 적혀 있고, 그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서 쓰는 날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대개 **원서 접수보다 앞에** 있습니다. 어느 과학고는 8월 하순이 기준일인데 원서는 그 뒤에 받습니다. 「**원서 전에 옮기면 되겠지**」로 계산하시면 늦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전 가족이 주민등록되어 실제 거주**」를 요구합니다. 서류상 주소만 옮겨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인되면 합격 뒤에도 취소 대상입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그 학교 요강의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전국형 자사고면 어디 살든 쓸 수 있나요?

모집 단위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첫째, **자사고는 후기고**입니다. 후기에서는 한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외교·국제고·자사고 중 **하나만**입니다. 「전국형이니까 하나 더」가 안 됩니다.

둘째, 전국형 자사고는 대개 **기숙**입니다. 학교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3년을 집 밖에서 지내는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원하는지가 성적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전국형」이라는 말은 **요강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평판으로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입은 입니다. 쓸 수 있는 학교를 먼저 추려 놓으면, 그다음 판단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고르는 일이기 전에 추리는 일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과 공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모집 단위·지원 자격·기준일은 학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학교의 최신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13 · 숫자부터

제도상 세 번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몇 장 쓸 수 있는 건가요?」

고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답은 세 번입니다.** 다만 아무 세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군마다 한 번씩**입니다.

군	한도	여기 속하는 학교
영재학교	1	영재학교 — 전기·후기 구분 밖 입니다
전기고	1	과학고 · 예고 · 체고 ·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후기고	1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 일반고

이 표가 고입 지원의 전부입니다. **세 줄을 외우시면 됩니다.**

영재학교가 따로 서 있는 까닭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운영돼 전기·후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에 떨어져도 전기고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재학교끼리는 안 됩니다** — 여덟 곳 중 한 곳입니다.

시기도 이 순서대로 흐릅니다. 영재학교가 여름에 끝나고, 전기고가 가을, 후고가 겨울입니다. **앞에서 떨어지면 뒤로 갑니다.** 제도가 세 번의 기회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은 셈입니다.

출처: 「영재교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시·도 교육청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14 · 무엇이 걸리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말로 설명하면 헛갈립니다. 표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영재학교 2곳 동시 지원	불가
영재학교 불합격 → 과학고 지원	가능
영재학교 합격 → 다른 학교 지원	가능 (합불 무관)
과학고 불합격 → 특성화고 지원	불가 (동일 전기고)
과학고 불합격 → 후기고 지원	가능
과학고 합격(등록 포기 포함) → 후기고 지원	불가
외고 + 자사고 동시 지원	불가 (동일 후기고)
외고 지원 + 일반고 2단계 동시 지원	가능
전기고 불합격자 → 전기고 추가모집	가능
해당 학년도 합격자 → 추가모집	불가

표를 관통하는 규칙은 하나입니다. 「같은 군에서 두 번은 안 된다」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출처: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이종지원 금지 조항. 세부 운영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교육청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15 ·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

이 셋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셋입니다.

Q. 하나 — 과학고에 붙으면 후기고가 달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등록을 포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붙어 보고 안 가면 되지」가 안 됩니다.

과학고에 합격한 순간 그해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고 원서는 「붙으면 간다」로 정해 놓고 넣으셔야 합니다. 넣기 전에 가족이 합의해 두십시오.

Q. 둘 — 외고와 자사고를 함께 넣을 수 없습니다

둘 다 후기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안전하게, 하나는 소신으로」가 후기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각이 잦은 까닭은 대학 입시와 달라서입니다. 대학은 수시 여섯 장을 씁니다. 고입은 후기에서 한 장입니다. 대학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반드시 틀립니다.

Q. 셋 — 전기고끼리도 안 됩니다

과학고와 특성화고는 둘 다 전기고입니다. 「과학고 떨어지면 마이스터고에」가 같은 해에는 안 됩니다.

예고·체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가 모두 전기고입니다. 갈래가 달라 보여도 군이 같으면 한 번입니다.

반대로 허용되는데 모르고 안 쓰시는 자리도 하나 있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2단계에 함께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 갈 곳을 남겨 두라고 만든 장치입니다. 이걸 꼭 챙기십시오.

출처: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후기 일반고 지원 방식은 시·도와 학군마다 다릅니다.

16 · 그래서 무엇을

원서를 짜는 차례와 점검표

세 번을 어떻게 쓸지는 뒤에서부터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차례	정할 것	왜 이 순서인가
1	후기에 어디를 쓸지 먼저 정합니다	마지막 문이라 여기가 바닥입니다
2	전기를 쓸지 말지 정합니다	붙으면 후기가 닫히기 때문입니다
3	영재학교를 쓸지 정합니다	여름을 통째로 씁니다
4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준비할 시간이 실제로 있는지

2번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전기고를 쓰는 순간 후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전기고는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일 때만 쓰는 자리입니다.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로 접근하면 오히려 선택지를 줄이게 됩니다.

원서를 넣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쓰려는 학교가 어느 군 인지 하나하나 확인했는가
- ☐ 같은 군에 두 곳을 넣고 있지 않은가
- ☐ 전기고에 붙으면 후기가 닫힌다 는 것을 가족이 알고 있는가
- ☐ 전기고에 붙었을 때 갈 것인지 미리 정했는가
- ☐ 후기 일반고 2단계 동시 지원 을 챙겼는가
- ☐ 영재학교를 쓴다면 여덟 곳 중 한 곳 인 것을 알고 골랐는가
- ☐ 전형 일정이 겹치지 않는가
- ☐ 떨어졌을 때 갈 학교 가 정해져 있는가

이중지원이 확인되면 최종 합격 뒤에도 취소됩니다. 중학교에서도 확인하지만, 마지막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전기고를 안 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학원은 전기고 준비로 오래 수업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고 한 장은 후기 한 장을 겹고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확신이 없다면, 후기 한 장에 힘을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17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전기고에 떨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기고에 떨어져도 후기고에 정상으로 지원합니다. 기록에 남아 불리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불이익은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붙었을 때 생깁니다. 합격하면 등록을 포기해도 후기고에 못 씁니다. **거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다만 눈에 안 보이는 값은 있습니다. **준비에 쓴 시간입니다.** 전기고 전형은 대개 2학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내신이 흔들리면 후기고 원서가 좁아집니다.**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가 남습니다.

Q. 영재학교를 중2에 한 번, 중3에 또 쓰면 두 번 아닌가요?

학년도가 다르니 제도상 각각 한 번씩입니다. 중2에 쓰고 떨어졌다면 중3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해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영재학교 전형은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집니다. 중2에 한 번 겪으면 그해 1학기를 상당 부분 씁니다. 그 시기 내신은 **과학고와 외고 지원에 그대로 쓰이는 성적**입니다.

「**경험 삼아 한 번**」이 값싼 선택이 아닙니다. 아이가 정말로 그 길을 원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쓰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고입의 원서는 **세 장이 아니라 세 번**입니다. 그리고 앞의 한 번이 뒤의 한 번을 달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알고 쓰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시·도 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중지원 규정의 세부 운영은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는 해당 교육청의 최신 기본계획과 학교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8 · 바뀐 것부터

옛 모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과학고 가서 2년 만에 졸업하고 의대 간다」

아직도 이 말을 믿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 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판단을 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어디가	무엇이 막혔나
서울대·연세대	조기진학자 지원 제한
고려대	2025학년도부터 조기진학자 지원 제한
KAIST	2026학년도부터 조기진학자 수시 전 전형 지원 불가
학교장추천전형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은 조기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불가

조기졸업으로 얻는 「1년」이 예전만큼 값이 없어졌습니다. **2년 만에 나가려고 특목고를 고르는 판단은 이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조기졸업은 원래 **드물게 쓰는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먼저 대학에 간다」는 목표로 굳어지면서 학교의 교육과정이 흔들렸습니다. 3년치를 2년에 몰아 듣느라 **연구 활동과 실험이 뒷자리로 밀렸습니다.**

대학이 문을 좁힌 자리가 여기입니다. 과학고·영재학교를 만든 까닭은 **과학을 깊게 하라는 것인데**, 조기졸업 경쟁이 그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한은 벌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리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아무 값도 없어졌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값이 있는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교육과정 그 자체**입니다. 일반고에 없는 고급·심화 과목, 실험 장비, 3년에 걸친 연구 활동, 그리고 **같은 것에 관심 있는 또래**입니다. 이것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몇 년 만에 나갈 수 있나**」가 아니라 「**이 3년을 쓸 아이인가**」입니다. 뒤에서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각 대학 2026·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19 · 무엇을 고르는가

다섯 갈래와 지원할 수 있는 횟수

「특목고」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안에 다섯 갈래가 있습니다. 갈래마다 지원 군이 달라서, 몇 번 쓸 수 있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갈래	학교 수	지원 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영재학교	8	영재	수학·과학 연구.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과학고	22	전기	수학·과학 심화. 시·도 단위
외국어고	28	후기	전공어 + 인문·사회
국제고	8	후기	국제 계열 교과 · 영어 수업 비중
자사고	33	후기	학교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짭니다

군이 같으면 한 번뿐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납니다.

후기고 셋은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는 모두 후기고입니다. 일반고도 후기고입니다. 후기에서는 **한 곳만** 쓸 수 있습니다. 「외고 하나 자사고 하나 넣어 두자」는 **안 됩니다**. 이중지원입니다.

이중지원이 확인되면 **최종 합격 뒤에도 취소**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허용됩니다 —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쓰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2단계에 함께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 갈 곳을 남겨 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횟수

제도상 **최대 세 번**입니다 — 영재학교에서 한 번, 전기고에서 한 번, 후기고에서 한 번. 순서도 시기가 정해 줍니다. 영재학교가 여름에 끝나고, 전기고가 가을, 후고가 겨울입니다. 앞에서 떨어지면 뒤로 갑니다.

다만 앞에서 붙으면 뒤가 닫힙니다. 과학고에 합격하면 **등록을 포기해도**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전기고 원서는 붙었을 때를 각오하고 넣으셔야 합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특목고 66교) 및 2026학년도 요강(자율형사립고 33교), 시·도 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학교 수는 2026년 8월 기준.

20 · 내신 5등급제

유리해 보이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특목고가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흐름은 확인됩니다. 학업중단자 추이가 학교 유형별로 갈렸습니다.

학교	2025	2026	바뀜
외고	148	116	-21.6%
국제고	31	15	-51.6%
과학고	24	13	-45.8%
전국단위 자사고	47	43	-8.5%
지역단위 자사고	131	157	+19.8%
일반고	9,847	10,450	+6.1%

특목고에서 나가는 학생이 줄었고 일반고에서는 늘었습니다. 내신 부담을 어느 쪽이 크게 느꼈는지가 보입니다. 등급이 9개에서 5개로 줄면 한 등급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학생이 몰린 학교일수록 이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 아직 한 바퀴가 안 돌았습니다. 5등급제는 2026년 고1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고2·고3에서 주로 배우는 진로선택·전문 교과는 아직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 숫자는 첫해** 것이고, 첫해 숫자로 3년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 —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고2·3의 진로선택·전문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함께 두므로 특목고의 내신 불리함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종 유불리는 결국 **대학이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와 **정시 선발 비율**이 정합니다. 그 둘은 아직 움직이는 중입니다.

출처: 학교알리미 공시 학업중단자 현황(2025·2026).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 위에 적은 대로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21 · 판단 기준

이 셋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보내야 하나 마나를 남이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어볼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Q. 하나 —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는가

과학고 교육과정은 일반고와 다릅니다. 고급·AP 과목이 들어가고 필수이수가 줄어듭니다. **과학이 싫은 아이에게는 3년이 갑니다.** 「대학 잘 가려고」 만으로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Q. 둘 — 중간에서 버틸 수 있는가

특목고에 가면 **지금 반에서 1등 하던 아이가 중간이 됩니다.** 그 자리를 견디는 아이가 있고 무너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성적보다 이것 먼저 보셔야 합니다.

Q. 셋 —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는가

과학고에 붙으면 등록을 안 해도 그해 후기고를 못 씁니다. **붙었을 때와 떨어졌을 때를 다 정해 두고** 넣으셔야 합니다. 급하게 정하면 그때부터 3년이 어긋납니다.

보내기로 정하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아이가 그 과목을 **시키지 않아도** 붙들고 있는가
- ☐ 지금 **학교 수업** 에서 남는 시간이 있는가 — 없다면 3년이 더 뻘뻘해집니다
- ☐ 가려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 를 실제로 읽어 보았는가
- ☐ 그 학교가 **어느 군** 인지 알고 있는가 (영재 · 전기 · 후기)
- ☐ 합격했을 때 **다른 문이 닫히는지** 확인했는가
- ☐ 떨어졌을 때 갈 학교를 **정해 두었는가**
- ☐ 기숙 생활을 **아이가** 원하는가 — 부모가 아니라
- ☐ 「1년 일찍 졸업」 이 **판단의 이유가 아닌가**

마지막 항목이 「그렇다」 이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본 대로 그 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특목고가 답인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습니다. 학원은 보내는 쪽으로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 준비 과정이 길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으면 보내지 마십시오.** 3년을 버티게 하는 것은 성적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22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특목고 가면 내신에서 손해 아닌가요?

잘하는 학생이 모이면 **같은 실력으로 받는 등급이 낮아집니다**. 이걸 사실입니다. 다만 그 손해를 어떻게 볼지는 **어느 전형으로 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신을 정량으로 세는 전형에서는 불리합니다. 반대로 **서류를 정성으로 읽는 전형**에서는 교육과정과 활동이 함께 읽힙니다. 일반고에 없는 과목을 들었다는 것이 거기서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손해다·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그 문을 안 정하고 학교부터 정하면, 3년 내내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Q. 일반고에서 1등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1등 할 것이다**」가 가정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특목고에 갈 만한 아이들이 일반고로 가면 그 학교의 상위권도 그만큼 두꺼워집니다. 「**일반고에 가면 자동으로 1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가 3년을 어디서 잘 지낼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성적을 보십시오. 반대로 하면 **버티는 데 3년을 다 씁니다**. 그리고 버티기만 한 3년은 어느 전형에서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특목고는 **더 좋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입니다. 물어야 할 것은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거기서 3년을 쓸 아이인가**」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공시 자료와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은 출처를 밝힌 자료에 근거하고, 판단 기준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다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뀌니 지원 연도의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3 · 숫자부터

과학에 46학점을 씁니다

「과학고는 과학을 더 많이 하는 학교죠?」

맞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하는지를 아시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편제표를 열어 보면 「조금 더」가 아닙니다.

학교의 무게중심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과학고의 3년 편제표입니다. 졸업까지 192학점을 듣고, 그 배분이 이렇습니다.

교과군	학점	일반고와 견주면
과학	46	여기에 무게가 실립니다
수학	32	과학 다음으로 큼니다
사회(역사·도덕 포함)	12	줄어듭니다
국어	6	크게 줄어듭니다
영어	6	크게 줄어듭니다

수학과 과학을 합치면 78학점입니다. 국어와 영어를 합친 12학점의 여러 배입니다.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은 「과학을 더 한다」가 아니라 「나머지를 덜 한다」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줄어듭니다. 국어와 영어가 그 자리입니다. 이것을 각오하실 수 있는지가 판단의 절반입니다.

출처: 경기북과학고 학교 발표 교육과정 편제표(학교발표). 학교마다 편성이 다르니 목표 학교의 편제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24 · 무엇을 배우나

전문교과 34과목의 이름들

일반고에 **아예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셔도 결이 보입니다.

교과	과목	무엇을
수학	4	전문 수학(6) · 고급 대수(4) · AP 미적분학 I (5) · 수학과제 탐구(5)
물리	6	물리학 실험(2) · 역학과 에너지(3) · 심화 물리학(3) · 고급 물리학(3) · AP일반물리 I (4)* · 물리학 주제 토론(3)
화학	6	고급 화학(2) · 물질과 에너지(3) · 화학 실험(2) · 화학심화탐구(2) · AP일반화학 I (4)* · 화학 주제 토론(3)
생명과학	6	생명과학 실험(2) · 생물의 유전(3) · 고급 생명과학(3) · 심화 생명과학 탐구(2) · AP일반생물학(4)* · 생명과학 주제 토론(3)
지구과학	6	지구과학 실험(2) · 고급 지구과학(3) · 지구 시스템의 이해(3) · 고급 지구과학 실험(2) · 지구과학개론(4) · 지구과학 주제 토론(3)
정보과학	6	파이썬프로그래밍(2) · 알고리즘 설계(2) · 정보과학(2) · 인공지능 알고리즘(2) · AP프로그래밍과문제해결(4)* · 정보과학 과제 연구(3)

모두 **34과목**입니다. 여기에 **실험**이 교과로 따로 들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일반고에서는 수업 안에서 잠깐 하는 것이 여기서의 한 과목**입니다.

「주제 토론」이라는 과목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마다 따로 있습니다. **혼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남 앞에서 말하고 반박을 받는 수업**입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에게는 이것이 3년 내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경기북과학고 학교 발표 교육과정 편제표. 괄호 안은 학점입니다.

25 · AP와 연구활동

대학 과목을 미리 듣습니다

편제표에 AP가 붙은 과목이 있습니다.

* 는 대학과정 학점 선 취득 이수제(AP) 과목. AP 미적분학 I 은 학교 지정으로 3학년 1학기에, AP일반물리 I · AP일반화학 I · AP일반생물학·AP프로그래밍과문제해결은 3학년 1학기 학생 선택(택3) 안에 들어 있다.

AP 는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듣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미적분학」·「일반물리학」·「일반화학」·「일반생물학」은 대학 1학년 과목의 이름입니다. 3학년 때 이 과목들을 듣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AP 를 들으면 대학을 빨리 나온다」는 것인데, 인정 여부와 범위는 진학하는 대학이 정합니다. 들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P 를 목적으로 학교를 고르지 마십시오.

연구활동 — 이것이 진짜 차이입니다

이름	학점	언제
과학창의연구	2	1학년 2학기, 교과 이수단위에 넣지 않고 괄호로 표기(이수/미이수)
자연학술탐사	1	2학년 1학기, 괄호 표기(이수/미이수)
주제 탐구(R&E) 심화	2	2학년 2학기, 괄호 표기(이수/미이수)

R&E(주제 탐구)는 학생이 주제를 정해 몇 달에 걸쳐 실제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지도 교사가 붙고, 끝에 발표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이만한 규모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기졸업이 막힌 뒤에도 남는 값입니다. 1년 일찍 나가는 것은 상당 부분 막혔지만, 3년에 걸쳐 연구를 해 본 경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목고를 고르는 이유가 여기여야 3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출처: 경기북과학고 학교 발표 교육과정 편제표. AP 인정 범위는 진학하는 대학이 정하며, 학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26 · 그래서 무엇을

읽는 법과 점검표

학교를 고르실 때 **편제표**를 직접 여시는 것이 설명회 열 번보다 낫습니다. 볼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례	어디를	무엇을 알 수 있나
1	교과군별 학점 표	이 학교가 무엇에 무게를 두는가
2	국어·영어 학점	줄어드는 쪽을 견딜 수 있는가
3	실험·연구 과목 수	말과 손을 얼마나 쓰는가
4	선택 과목의 폭	아이가 고를 여지가 있는가

2번을 특히 보십시오. 과학고를 나와도 대학은 국어와 영어를 봅니다. 학교에서 덜 듣는 만큼 **스스로 챙겨야 하는 과목**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3학년에 당황합니다.

과학고를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학교의 **편제표** 를 직접 열어 보았는가
- ☐ **국어·영어 학점** 이 몇인지 확인했는가
- ☐ 줄어드는 과목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아이인가
- ☐ **실험 과목** 이 몇 개인지 보았는가
- ☐ **주제 토론** 수업을 아이가 견딜 수 있는가
- ☐ **R&E** 같은 장기 연구를 해 볼 마음이 있는가
- ☐ AP 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 ☐ 이 교육과정을 **아이에게 보여 주었는가**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3년을 보내는 것은 아이입니다.** 편제표를 함께 읽어 보십시오 — 「이거 재밌겠다」와 「이걸 3년이나?」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가 답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제표를 읽는 데는 학원이 필요 없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한 시간이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시간이 **설명회에서 듣는 어떤 말보다 정확합니다** — 설명회는 학교가 보여 주고 싶은 것을 보여 주고, 편제표는 3년 동안 실제로 할 일을 보여 줍니다.

27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과학고 나오면 의대에 못 가나요?

제도로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좁아진 자리가 여럿 있습니다.

첫째, **조기졸업으로 1년 일찍 가는 길**은 상당 부분 막혔습니다. 주요 대학이 조기진학자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장추천전형**은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이 조기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학교 차원에서 권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과학고는 이공계 연구자를 기르라고 만든 학교**이고, 그 목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불가능」이 아니라 「좁고, 학교의 목적과 어긋난다」입니다. 의대가 목표라면 **이 교육과정을 3년 듣는 것이 그 목표에 맞는지부터** 보십시오 — 국어·영어가 크게 줄어드는 편성입니다.

Q.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편제표에서 보신 대로 수학·과학이 대부분이고, 진도가 빠르며, 주위가 다 잘합니다.

다만 「따라간다」의 뜻을 좁게 잡지 마십시오. 등수로 보면 절반은 반드시 아래쪽입니다 — 잘하는 아이들만 모였으니 당연합니다. **등수가 아니라 「수업이 재미있는가」로 보셔야 3년을 견딥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풀이해 드리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이가 그 과목을 좋아하지 않으면 보내지 마십시오.** 좋아하면 중간이어도 3년을 잘 씁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1등이어도 버티기만 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과학고의 값은 **빨리 졸업하는 데 있지 않고 3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에 있습니다.** 편제표가 그 3년을 미리 보여 줍니다.

거기서부터 판단하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한 학교의 공개 편제표를 예로 든 것입니다. 학교마다 편성이 다르니 목표 학교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진학 결과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28 · 숫자부터

수학을 안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외고 가면 이과는 못 가는 거죠?」

가장 자주 받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 때문에 **맞는 아이가 시작도 안 해 보고 접는 일**이 생깁니다. 편제표를 열어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편제표가 공개된 외고·국제고 **12곳**을 세어 보았습니다. 3년 동안 듣는 **수학·과학 학점**입니다.

교과	이수 학점	필수이수 기준	전주면
수학	15~23학점	8학점	기준의 두 배 안팎
과학	8~14학점	10학점	기준 언저리에서 그 이상
졸업 총학점	174~196학점		일반고보다 많습니다

센 **12곳**이 모두 수학을 필수이수 기준보다 많이 듣습니다. 「수학을 안 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학을 23학점까지 편성한 학교도 있습니다.

수학 이수 학점	학교 수
20학점 이상	3
17~19학점	6
15~16학점	3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 **더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고와 비슷하게 보통교과를 듣고, 그 **위에** 전공 과목을 엮습니다. 그래서 총학점이 190을 넘는 곳이 많습니다. **덜 하는 학교가 아니라 더 하는 학교**입니다.

출처: 각 학교가 공개한 교육과정 편제표(2026년 8월 기준) 12곳을 집계. 학과별 편성이 있는 학교는 공통 편성과 첫 학과를 기준으로 셉습니다. 학교마다 편성이 다르니 목표 학교의 편제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29 · 무엇이 다른가

전공어에 68학점을 업습니다

외고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보통교과 106~110학점 + 전공 68학점**입니다.

무엇	학점	어떤 과목
보통교과	106~110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체육·예술 — 일반고와 같은 결
전공 과목	68	심화 영어 + 전공어 + 국제계열 과목

68학점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학과를 가릅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학과	영어	제2외국어
영어과	41~42학점	18~23학점
중국어과· 일본어과 등	18~23학점	41~42학점

즉 어느 학과를 가도 **영어와 제2외국어를 둘 다** 합니다. 비중만 뒤집힙니다. 「중국어과 가면 영어를 안 한다」가 아닙니다 — 18~23학점은 여전히 영어입니다.

과목 이름을 보시면 결이 보입니다

심화 영어 I·II, 심화 영어 독해 I·II, 심화 영어 작문 I·II, 심화 영어 회화 I·II,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비판적 사고와 영어 작문**.

뒤의 둘을 보십시오. **영어로 읽고 따지고 쓰는 과목**입니다. 회화가 아니라 **글을 다루는 훈련**이 3년 내내 이어집니다.

전공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전공 기초 → 회화 I → 독해와 작문 I → 회화 II → 문화 → 독해와 작문 II 순으로 짍니다.

여섯 학기를 끊기지 않게

그래서 외교에서 3년을 보낸다는 것은 「언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오래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맞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습니다. 이과·문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 각 학교 공개 교육과정 편제표. 학점은 학교·학과마다 다릅니다.

30 · 국제고는 또 다릅니다

전공이 언어가 아니라 과목입니다

국제고는 이름이 비슷해서 외교와 묶이지만 전공의 성격이 다릅니다.

	외국어고	국제고
학교 수	28	8
전공	언어 — 학과가 언어로 나뉩니다	국제계열 과목 — 학과를 안 나누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 과목	심화 영어 · 전공어 회화·독해·작문	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제2외국어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필수	여러 언어 중 택1로 3년

어느 국제고는 「외국어·국제 계열(사회)」로만 36학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 정치·국제 경제 같은 과목이 사회 교과로 잡혀 있습니다. 외교가 언어를 깊게 판다면, 국제고는 사회를 영어로 판다고 보시면 가깝습니다.

영어 수업의 결도 다릅니다

어느 국제고는 영어 전공 과목으로 퍼블릭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 영어 토론과 시사 · 영어 비판적 사고와 논증 · 영어 연구 및 세미나 · 영문학을 편성했습니다.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교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에게는 3년이 짧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는 3년이 깁니다. 성적보다 이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출처: 각 학교 공개 교육과정 편제표. 국제고마다 편성 차이가 큼니다.

31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외고·국제고를 볼지 말지는 **이 순서로 물으면** 정해집니다.

차례	물을 것	답에 따라
1	아이가 읽고 쓰는 것을 견디는가	아니면 3년이 겁니다
2	말하고 토론하는 수업이 맞는가	국제고는 특히 그렇습니다
3	영어 내신이 안정적인가	1단계가 영어만 봅니다
4	출결이 깨끗한가	중1부터 봅니다
5	후기 한 장을 여기 쓸 것인가	자사고와 함께 못 씁니다

1번과 2번이 3번보다 앞인 것을 보십시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언어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엿것만 보고 들어가면 잘하는데 재미없는 3년이 됩니다.

외고·국제고를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학교의 편제표를 직접 열어 보았는가
- ☐ 수학·과학 학점 이 몇인지 확인했는가
- ☐ 학과에 따라 전공어 배분 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
- ☐ 제2외국어를 3년 하게 되는 것을 아이가 아는가
- ☐ 영어 내신 네 학기 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았는가
- ☐ 출결 감점 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 후기 한 장을 여기에 쓸 각오 가 되었는가
- ☐ 편제표를 아이와 함께 읽었는가

「이과 갈 수 있나」가 아직 걸리신다면 첫 항목으로 돌아가십시오. 편제표에 수학이 몇 학점인지가 답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일반고에서도 그 과목으로 유리합니다. 외고가 값이 있는 것은 언어를 깊게 다루는 3년을 원할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잘하는 과목 하나 때문에 나머지 과목의 환경을 바꾸는 셈이 됩니다.

32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외교 나와서 이공계로 갈 수 있나요?

제도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에 출신 고교 갈래로 거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과학이 8~14학점입니다. 일반고 이과 학생이 듣는 물리·화학·생명과과학의 심화 과목까지는 **편성이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공계를 생각하신다면 **목표 학교 편제표에서 과학 선택과목이 어디까지 열리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학교마다 다릅니다. 「외고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학교 편제표에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Q. 제2외국어를 3년 하면 손해 아닌가요?

무엇과 견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입 점수만 보면 제2외국어를 반영하는 자리는 넓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면 점수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견 사실입니다.

다만 외교의 전공 68학점은 **떼어 낼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것을 빼면 그냥 일반고가 됩니다. 「**전공을 3년 하는 것이 값이 있는가**」가 학교를 고르는 질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 아이가 언어를 하나 더 갖는 것이 3년을 쓸 만한 일인가.**」 그렇다면 손해가 아니고, 아니라면 **학교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한 줄로 남기면

외고·국제고는 **문과 학교가 아니라 언어를 더 하는 학교**입니다. 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니**, 물어야 할 것은 「무엇을 못 하게 되나」가 아니라 입니다.

「이 없는 것을 원하나」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각 학교가 공개한 교육과정 편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편제표가 공개된 학교만 실었으며, 학교·학과마다 편성이 다릅니다. 지원 전에는 목표 학교의 최신 편제표와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진학 결과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33 · 숫자부터

학비가 일반고의 열아홉 배입니다

「자사고 한번 알아볼까요.」

설명회에서 교육과정과 진학 실적은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런데 **3년치 돈이 얼마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 판단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보시겠습니다.

학생 한 명당 **학부모부담금**입니다. 수업료만이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수익자부담경비를 모두 합한 **1년치**입니다.

어디	1년 부담금	일반고 대비	3년이면
전국단위 자사고	1,355만 원	약 19배	약 4,067만 원
광역단위 자사고	850만 원	약 12배	약 2,549만 원
일반고	71만 원	—	약 214만 원
가장 비싼 자사고	3,657만 원	51.3배	약 1억 971만 원

이 숫자를 **겁주려고** 심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정하시라고** 심습니다. 1학년 때 감당하다가 2학년에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기숙사비, 교복, 교재, 방과후, 그리고 **사교육**입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대개 기숙이라 **실제로** 나가는 돈은 **이보다** 큼니다.

출처: 김문수 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고등학교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2023년 결산 기준)」. 3년 환산은 같은 금액이 3년 이어진다고 가정한 **저희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학교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34 · 전국형과 광역형

33곳이 둘로 갈립니다

자사고는 **33곳**입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로 크게 갈립니다.

갈래	학교 수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전국단위	10	전국 어디서나. 대개 기숙 입니다
광역단위	23	그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거주자

앞의 표에서 보셨듯 **돈도 여기서 갈립니다**. 전국단위가 1,355만 원, 광역단위가 850만 원입니다. **1.6배** 차이입니다. 기숙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이름으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학교 = 전국단위」가 **아닙니다**. 서울의 이름난 자사고 중에도 광역단위가 있습니다. **요강의 「모집 단위」 칸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낱말로 찾게 했더니 **서울 광역단위 학교를 전국단위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강 원문에 적힌 것만** 씁니다. 학부모님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 쏠림이 있습니다

33곳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시는 곳에 따라 **광역단위로 쓸 수 있는 학교가 아예 없거나 한두 곳**일 수 있습니다. 그때 남는 선택지는 **전국단위 10곳**인데, 그쪽은 기숙이고 학비가 큼니다. 「자사고를 볼까」가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질문**이 되는 까닭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6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및 학교알리미 공시(2026년 8월 기준). 모집 단위는 요강 원문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35 · 무엇이 다른가

자율의 값과 대가

자사고가 일반고와 다른 점은 이름 그대로 **자율**입니다. 다만 그 자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자사고	일반고
교육과정	학교가 스스로 짭니다	국가 기준을 따릅니다
학생 선발	학교가 뽑습니다	배정이 많습니다
재정	학부모 부담이 큼니다	국가·교육청 지원
지원 군	둘 다 후기고 — 한 번만 씁니다	

맨 아랫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사고는 후기고**입니다. 외교·국제고와 같은 군입니다. 「외고 하나 자사고 하나」가 안 됩니다. 후기에서 한 장입니다.

「자율」이 늘 좋은 쪽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을 스스로 짭다는 것은 **학교의 색이 진하다**는 뜻입니다. 그 색이 아이에게 맞으면 3년이 값집니다. 안 맞으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일반고보다 **편차가 큼**다 —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그래서 자사고는 「자사고라서」가 아니라 「이 학교라서」로 **고르셔야** 합니다. 같은 자사고끼리도 교육과정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편제표와 학교 생활 규정을 학교별로** 보셔야 하는 까닭입니다.

내신은 어떻게 되나

선발해서 뽑으니 **잘하는 학생이 모입니다**. 같은 실력으로 받는 등급이 낮아집니다. 다만 2026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 이 부담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첫째 자료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고2·3 과목이 아직 한 바퀴를 안 돌았습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율형 사립고 조항, 각 학교 요강 및 공시 자료. 내신 관련 해석은 저희 판단이며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36 · 그래서 무엇을

고르는 차례와 점검표

자사고는 돈과 군(群)이 함께 걸리는 갈래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차례	정할 것	왜 이 순서인가
1	3년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중간에 못 내면 아이가 다칩니다
2	후기 한 장을 여기 쓸 것인가	외고·국제고와 못 겹칩니다
3	전국형이면 기숙을 아이가 원하는가	3년을 집 밖에서 지냅니다
4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맞는가	학교마다 색이 다릅니다
5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후기 일반고 2단계를 챙기십시오

1번을 맨 앞에 둔 까닭이 있습니다. 학비는 합격한 뒤에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년 중간에 어려워지면 전학이라는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넣기 전에 3년치로 계산해 보십시오.

자사고를 고르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그 학교의 연간 부담금 을 학교에 직접 확인했는가
- ☐ 기숙사비·교재비 등 부담금에 안 들어간 것 을 더해 보았는가
- ☐ 3년치 로 계산해 보았는가
- ☐ 요강의 모집 단위 칸을 직접 보았는가
- ☐ 후기 한 장을 여기 쓸 각오 가 되었는가
- ☐ 전국형이면 기숙 을 아이가 원하는가
- ☐ 그 학교 편제표 를 읽어 보았는가
- ☐ 후기 일반고 2단계 동시 지원 을 챙겼는가

첫 세 항목은 학교 행정실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공시 자료보다 학교에 직접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해마다 바뀝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비가 부담되신다면, 그 이유만으로 자사고를 접으셔도 됩니다. 부끄러운 판단이 아닙니다. 앞의 표에서 보신 대로 3년에 수천만 원이 걸립니다. 그 돈을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남겨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학교 이름이 3년 뒤를 정하지 않습니다.

37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자사고에 가면 대학을 더 잘 가나요?

저희는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진학 실적은 학교가 무엇을 해 주었는지와 애초에 어떤 학생이 들어왔는지가 섞여 있어 갈라내기 어렵습니다. 선발해서 뽑는 학교의 실적을 **학교의 성과로만 읽으면 과대평가가 됩니다.**

대신 이렇게 여쭙습니다. 「**같은 아이가 일반고에 갔다면 어땠을까.**」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자리는 **교육과정과 환경이 그 아이에게 확실히 맞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확실히하고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3년에 수천만 원은 정해진 값이고, 진학은 아닙니다. 그 비대칭을 알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사회통합전형으로 가면 학비가 줄어드나요?

학교와 전형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학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자사고는 정원의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학비 감면이 함께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감면 범위가 학교마다 다르고**, 부담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되실 수 있다면 **반드시 알아보십시오.** 모르고 일반전형으로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요강의 사회통합전형 쪽에 적혀 있고, **감면은 요강이 아니라 학교 행정실에 물으셔야** 정확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사고는 「**좋은 학교인가**」 보다 「**이 값을 치르고 이 3년을 살 것인가**」로 정하는 갈래입니다. 그 계산은 집집마다 다르고, **다른 답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공시 자료와 보도된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부모부담금은 2023년 결산 기준 집계이며 학교·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금액은 반드시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진학 결과나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38 · 숫자부터

배점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안다고 하는 쪽은 지어내는 것입니다. 대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 「**학교가 무엇에 몇 점을 주는가**」입니다. 그건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외국어고·국제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은 **200점**으로 짜여 있습니다.

단계	무엇을 보나	배점
1단계	영어 내신 — 중2~중3 네 학기 영어 성취도	160
	출결 — 감점으로 깎습니다	감점
2단계	면접 — 자기주도학습(꿈과 끼)	30
	면접 — 인성	10

여기서 두 가지가 바로 보입니다.

하나 — 1단계는 영어만 봅니다. 국어도 수학도 안 봅니다. 네 학기 영어 성취도를 점수로 바꿔 씁니다. 어느 학교는 **A 40 · B 36 · C 32 · D 28 · E 24점**으로 환산합니다. **A와 B의 차이가 4점**입니다.

둘 — 자소서는 따로 점수가 없습니다. 자소서는 **면접 40점 안에서 읽힙니다**. 면접 전 서류평가가 그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자소서는 「**점수를 받는 글**」이 아니라 「**면접에서 물을 거리를 내는 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엉뚱한 글을 씁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의 전형 방법·배점. 배점과 환산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목표 학교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39 · 무엇이 다른가

학교마다 감점이 열 배 다릅니다

같은 「자기주도학습전형」인데 세부 규칙이 학교마다 크게 다릅니다. 가장 크게 벌어지는 자리가 **출결 감점**입니다.

무엇	어느 학교	다른 학교
미인정결석 1일	1점 감점	0.1점 감점
감점 한도	최대 10점	학교마다 다름
지각·조퇴·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셉니다	
보는 기간	중학교 1~3학년 전체	

열 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감점 1점이 가벼운 점수가 아닙니다. 160점 만점에서 10점은 **성취도 A와 C의 차이**만큼입니다. 「결석 며칠쯤이야」가 **등급 두 칸을 깎는 것과 같아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간을 보십시오 — 중1부터입니다

성적은 중2부터 보는데 **출결은 중1부터** 봅니다. 이걸 모르고 중1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1 출결은 나중에 고칠 수 없습니다.**

동점자 처리도 학교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점수면 어느 과목을 먼저 보는지가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3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 3학년 1학기 국어** 순으로 거슬러 갑니다. 사회가 없는 학기는 역사로 대신합니다.

이 조항이 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만 보는 전형인데도 국어와 사회가 마지막에 쓰입니다.** 「영어만 하면 된다」로 몰아가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의 출결 감점·동점자 처리 조항. 인용한 수치는 실제 요강의 값이며, 학교마다 다릅니다.

40 · 적으면 안 되는 것

쓰는 법보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소서는 잘 쓰는 것보다 「걸리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는 적으면 감점 또는 0점인 항목입니다. 요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항목

-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 HSK / JLPT 등 인증시험 점수
- ☐ 한국어(국어)·한자 능력시험 점수
-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 ☐ 자격증
- ☐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 ☐ 부모·친인척의 직장명, 직위,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 ☐ 중학교별 독서 인증제·체력 인증제·영어 단어 인증제 수료 및 성과물
- ☐ 해외 어학연수·해외봉사활동 경험 (국내 학적자)
- ☐ 선행학습·사교육 관련 내용
- ☐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 대필·표절 (입학 후에도 합격 취소 가능)

위반하면 항목별 감점 또는 0점 처리입니다. 간접적·우회적 기재도 금지입니다 — 「어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처럼 에둘러 적는 것도 걸립니다.

이 목록이 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만든 것은 쓸 수 없습니다.** 인증시험도, 대회도, 자격증도, 영재교육원도, 해외 경험도 안 됩니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관한 내용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적나요. **학교 안에서 한 것입니다.** 수업, 수행평가, 동아리, 독서, 그리고 그것을 왜 했고 무엇이 남았는가입니까.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필과 표절은 별도입니다. **입학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원이나 업체가 대신 써 주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 **걸리면 되돌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출처: 각 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의 자기소개서 배제사항. 항목은 학교·시도마다 조금씩 다르니 목표 학교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41 · 학교가 밝힌 평가 항목

요강에 적힌 말만 옮깁니다

「무엇을 보는가」도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갈래마다 다릅니다.

갈래	요강이 밝힌 평가 항목
영재학교	융합적 사고력 · 창의적 문제해결력 · 과학적 탐구능력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 발전가능성 · 인성
과학고	최근 네 학기 수학·과학 성취도 · 생활기록부 기반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학업 태도 · 개별면담과 소집면접으로 확인하는 탐구 경험과 인성
외고·국제고	중2~중3 영어 성취도 · 면접의 자기주도학습(꿈과 끼) 와 인성

세 갈래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말이** 들입니다 — **자기주도와 인성**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제도가 이 전형을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자기주도」가 요강에서 뜻하는 것

어느 요강은 이렇게 풀어 적었습니다 — **목표 설정 → 계획 → 학습 → 결과 평가의 전 과정**.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굴렸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읽히는 이야기는 결과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과정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 어긋났다가 고친 대목이 있으면 오히려 낫습니다.

자소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학교 요강의 **배점표** 를 직접 보았는가
- ☐ 1단계에서 **어느 과목** 을 보는지 확인했는가
- ☐ **출결 감점** 이 얼마인지 확인했는가
- ☐ 출결이 **중1부터** 반영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 기재 금지 항목을 **한 줄씩** 확인했는가
- ☐ 에둘러 적은 자리가 **없는가**
- ☐ 적은 활동이 **학교 안에서 한 것** 인가
- ☐ 각 이야기에 **과정이 들어 있는가** — 결과만 있지 않은가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소서를 대신 써 드리는 곳에 말기지 마십시오**. 대필은 적발되면 입학 뒤에도 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손해입니다 — **면접은 그 글을 놓고 묻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은 글은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아이가 쓰게 하시고, 어른은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를 묻는 자리까지만 하십시오.

42 · 자주 묻는 것

고입 학부모님이 실제로 하시는 질문

Q.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나요?

요강이 밝힌 것은 **영역**이지 질문이 아닙니다 — 자기주도학습(꿈과 끼) 30점, 인성 10점입니다. **기출 질문을 파는 곳이 있다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다만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면접은 **제출한 서류를 놓고** 봅니다. 자소서와 생활기록부에 적힌 것을 「이건 어떻게 한 것인가」로 되물습니다.

그러니 준비란 **적은 것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적지 않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소서에 적을 수 없는 것은 면접에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Q. 영어 성취도가 B 하나 있으면 안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격선은 해마다 지원자에 따라 움직입니다.** 저희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술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느 학교 환산표로 A는 40점, B는 36점입니다. **한 학기 B는 4점**입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미인정결석 1일이 1점, 최대 10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 하나는 결석 나흘어치**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2단계 면접이 40점** 남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성취도를 붙들고 계시는 것보다, 남은 학기와 출결과 면접에 힘을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로 남기면

자소서는 **잘 쓰는 글이 아니라 정확한 글**입니다. 금지 항목을 피하고, 학교 안에서 한 것을, 과정이 보이게 적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공개 요강에 적힌 평가 항목과 배점만 정리한 것입니다. 합격 여부나 합격선을 예측하지 않으며, 특정한 작성 방식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배점·감점·기재 금지 항목은 학교마다 다르니 목표 학교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3 · 닫으며

한 줄로 남기면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고입은 더 좋은 학교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맞는 제도를 고르는 일입니다. 제도를 먼저 읽으시면 학교는 저절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 가운데 상담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요강을 읽는 일, 달력에 날짜를 찍는 일, 등급을 다시 계산해 보는 일 — 대부분 집에서 하실 수 있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해 보신 뒤에도 남는 질문이 있으실 때, 그때 저희를 찾아 주십시오. 그런 질문에는 저희가 값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인쇄하셔도 되고, 파일로 보내셔도 되고, 학교나 모임에서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다른 집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고르게 퍼지는 것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입시CUBE

이 책의 내용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강과 제도는 해마다 바뀌고 학교·대학마다 다르니, **지원 전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대학의 최신 요강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책은 합격 여부나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